



#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성 요한 세례자 탄생 대축일 (예수 성심 성월)  
제27권 30호 (다해) 2007.6.24

## [묵상]



### 한 아이의 탄생의 비밀

오시려고

오시려고 새들은 그렇게 울었나봅니다.

오시려고 천둥 먹구름은 그렇게 왔나봅니다.

오시려고 비를 내려 물로 씻어 주셨나봅니다.

빛으로 씻어 생명의 불꽃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 한광구 요셉 · 시인 / 최창원 니콜라오 · 화가

##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962-8414  
연령회 (장래시 연락처) : (213)458-0396

|     |                              |                                |
|-----|------------------------------|--------------------------------|
| 수요일 | 평일 미사                        | 오후 7:30                        |
| 목요일 | 평일 미사                        | 오후 7:30                        |
| 금요일 | 평일 미사                        | 오전 8:30                        |
| 토요일 |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br>특전미사 (청년미사) | 오전 8:30<br>오후 7:00             |
| 주일  | 아침 미사<br>주일학교미사(영어)<br>낮 미사  | 오전 7:30<br>오전 9:30<br>오전 11:00 |

## 주간 행사표

|     |                                                                                                                                              |                                                             |
|-----|----------------------------------------------------------------------------------------------------------------------------------------------|-------------------------------------------------------------|
| 화요일 | 백삼위 신앙학교<br>(4단계 7월10일까지)                                                                                                                    | 오후 7:30                                                     |
| 수요일 |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br>거룩한 독서(Lectio Divina)<br>예비자 교리반                                                                                         | 오후 2:00<br>오전 10:30<br>오후 8:00                              |
| 목요일 | 병자영성체 (1째주)<br>성 시간 (첫목요일)<br>성령 기도회                                                                                                         | 오전 9:30<br>저녁 미사후<br>오후 8:00                                |
| 금요일 |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br>M. E. Sharing(3째주)<br>울뜨레아 (4째주)<br>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 오전 9:30<br>오후 7:00<br>오후 8:00<br>오후 8:00                    |
| 토요일 | 유아세례 (4번째 토요일)<br>배론 청년모임<br>떼제기도모임 (2째주 토요일)                                                                                                | 오후 6:00<br>오후 5:00<br>오후 8:30                               |
| 주일  | 병자 영성체<br>글로리아 성가대<br>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br>2째주 - 모임의 날<br>● 빈첸시오회<br>● 요셉회/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br>대건부부회/원서부부회<br>3째주 - 행사의 날<br>4째주 - 사목회<br>가정의 날 | 오전 중<br>오전 9:00<br>오후 1:00<br>오전 9:00<br>오후 1:00<br>오후 1:00 |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박상대 마르코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구마리아네 (310)326-4350 Ext.102  
평협회장 : 유철희 바오로 (310)320-3697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             |                                                                                                                                                                                                                                                                                                            |
|-------------|------------------------------------------------------------------------------------------------------------------------------------------------------------------------------------------------------------------------------------------------------------------------------------------------------------|
| 토 요<br>특전미사 | (연)Organ Donor를 위하여<br><br>(생)문영일 안토니오 & 신혜숙 율리아, 김희복 아녜스<br>민석준 토마스 & 미에, 김풍길 바오로                                                                                                                                                                                                                         |
| 주 일<br>낮 미사 | (연)정명조 아우구스티노 주교님, 박다두 & 김레이몬드<br>황지엽 요셉, 손석조 마리아, 양갑순 마리아, 천서인 레지나<br>최병기 요셉 & 정요임 안나, 김인영 베드로, 이현호 요한<br>김성용 방저거, 김창배 파스칼, 이영자 마리아<br><br>(생)이필주 바오로, 이봉림 안나, 김마태오, 엄효정 모니카<br>박제임스 마르코, 이종민 요셉, 정경록 베네딕도, 오세명<br>한지웅 레오, 이영진 레오날도, Mario Avina 가정<br>사목위원들을 위하여, 구마리아네 수녀님<br>임언기 안드레아 신부님, 박상대 마르코 신부님 |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이사야서 49,1-6

**화답송** ○하신 일들 묘하옵기 당신을 찬미 하나이다.  
○주여 당신은 나를 살살이 보고 아시나이다.  
앉거나 서거나 매양 나를 아시옵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꿰뚫으시나이다.  
걸을 제도 누울 제도 환히 아시고  
내 모든 행위를 익히 보시나이다.◎  
○당신은 오장육부 만들어 주시고  
어미의 복중에서 나를 엮어 내셨으니  
묘하게도 만들어진 이몸이옵기  
하신 일들 묘하옵기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당신은 내 영혼도 완전히 아시나이다.  
은밀한 속에서 내가 지음 받았을 제  
깊숙한 땅속에서 내가 엮어졌을 제  
당신은 내 뉘뉘이를 알고 계셨나이다.◎

제 2독서 사도행전 13,22-26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아기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리고 주님을 앞서 가 그분의 길을 준비하리라.◎

**복 음** 루카 1,57-66,80

**영성체송** 우리 하느님의 크신 자비로 떠오르는 태양이  
높은 곳에서 우리를 찾아오셨도다.

오늘의 성가

|     | 청년미사  | 낮 미사     |
|-----|-------|----------|
| 미사곡 | 51~58 | 33~42    |
| 입당  | 313   | 313      |
| 봉헌  | 264   | 269      |
| 성체  | 409   | 287, 300 |
| 파견  | 312   | 233      |

✧ 저룩한 미사에 대한 카탈리나의 증언(11) ✧

사제가 주님의 몸을 그녀의 혀 위에 놓자, 한줄기 빛이 나오더  
니 그 빛이 처음에는 그녀의 등을 그러고는 등에서 어깨로 그리  
고 머리로, 그녀의 몸을 관통하여 희고 찬란한 금빛으로 빛났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이 완전히 깨끗한 마음으로 나를  
모시러 오는 영혼을 내가 기뻐하며 껴안는 방법이다!”

예수님의 음성은 몹시 기쁘고 행복한 사람의 음성이었다.  
나는 너무나 어리둥절하고 놀라서, 주님의 포옹 속에, 빛에 둘러  
싸여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내 벼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렇게  
도 큰 축제이고 축제여야 할 순간에 우리가 크고 작은 죄를 지은  
상태로 주님을 모시겠다고 주님의 식탁에 나아감으로써 놓쳐  
버리는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생각했다.

우리가 원하면 언제라도 고해성사를 볼 수 있는 사제가 그리  
많지 않다고 우리는 자주 말한다. 하지만 문제는 또다시 고백하  
는 순간들이 아니라 유혹에 건디지 못하고 또다시 쉽게 죄에 떨  
어지고 마는 데 더 많은 문제가 있다. 미용실을 찾거나 이발소를  
찾는 수고를 하는 것처럼, 축제에 초대받고 거기 가야 한다면,  
창조주이신 주님을 위해 힘들어서 좋은 미용사를 찾아야한다.  
주님께서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죄에서 우리 모두를 씻어내기  
위해 필요하다면, 우리 자신을 위해 사제를 찾는 수고는 많은 것  
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더러운 것으로 가  
득 차 있는 상태로 예수님을 아무 때나 모실 수 있다는 무례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내가 성체를 모시러 나가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마지막 만찬은 내 제자들과의 가장 위대한 친교의 순간이었  
다. 그 사랑의 시간에, 나는 사람들의 눈에 가장 어리석어 보이  
는 행동, 사랑의 미친짓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성사를 제정했다.  
바로 나 자신을 사랑의 포로로 만드는 것이었다. 나는 성체성사  
를 제정했다. 너희와 함께 너희 안에서 세상 끝 날까지 함께 있  
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내 사랑은 내 생명 보다 더 사  
랑하는 너희가 고아로 남아 있는 것을 견딜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성체를 받아 모셨다. 주님의 몸을, 그런데 그때, 그것은  
전혀 다른 맛이였다. 그것은 피와 향이 섞인 것이었는데, 나를  
완전히 충만하게 했다. 너무나 큰 한없는 사랑에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뺨 위로 흘러내렸다. 내 자리로 돌아와 무릎을 꿇고 있  
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들어보아라.” 그러자 갑자기 내 앞  
에 앉아 있는 방금 성체를 모신 부인의 기도 소리가 내 안에 들  
리기 시작했다. 그녀가 입을 벌리지 않고 마음속으로 기도한 내  
용은 대체로 이런 것이였다. “주님, 기억해 주소서. 월말이 다가  
왔는데 저는 집세를 낼 돈도, 차 할부금도, 애들 학비도 없습니  
다. 어떻게든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발 남편이 술을 많이 마시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저는 더 이상 그의 알코올 중독을 참아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은 당신이 도와주지지 않으면 낙제  
해서 학교를 일 년 더 다녀야 할것입니다. 그는 이번 주 시험을  
쳤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고 제 이웃을 당장 이사 가도록 해  
주십시오. 더 이상 그녀를 참을 수 없습니다…….”

◆ 카탈리나 리마스 / 다음 주에 계속

## 한 아이의 탄생의 비밀

한 생명의 탄생은 우리에게 놀라움과 기대를 갖게 합니다. 한 생명이 자라서 어떤 인물이 되며, 어떤 일을 하게 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아이가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 주기를 바라고 준비할 뿐입니다. 전에 제가 혼인 주례를 했던 부부가 예쁜 아이를 낳아서 돌잔치에 초대했습니다. 한 아이의 돌잔치를 바라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아이의 탄생으로 참 많은 사람의 위상이 바뀌는구나’라는 사실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남으로 신랑은 아빠가 되었고, 신부는 엄마가 되었고, 장인·장모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되었고, 누구는 삼촌이, 누구는 이모가 되었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된 것이 아니고 아이가 태어남으로써 거저 얻어진 위상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아이의 탄생은 이 아이와 관련된 주변의 모든 사람의 위상을 바꾸어 놓는 놀라운 힘을 가졌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천 년 전 한 아이의 탄생은 세상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아이의 탄생으로 하느님의 은총과 자비의 때가 시작됩니다. 또한 신약과 구약을 나누는 경계선이 생기며, 율법과 예언자의 시대를 마감하고 메시아의 오심을 알리는 분기점이 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사람의 탄생을 두고 “예언자보다 더 중요한 인물”(마태 11,9)이며,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이 사람보다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마태 11,11)고 극찬하셨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으로 그 뜻은 ‘하느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의미로 아기와 그 아기의 사명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을 분명히 드러내 보이는 표지입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주님께서 나를 모태에서부터 부르시고 어머니 배 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지어 주셨다”(이사 49,1)고 하듯, 하느님의 뜻에 따른 이름 ‘요한’의 탄생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주님 구원의 서막이 시작됨을 알리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요한은 태어나기 전 마리아의 방문을 받았을 때 어머니의 태중에서 기뻐 뛰놀았습니다(루카 1,44). 그래서 요한은 태어나기 전부터 예언자로 간택되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보시기 전부터 그리스도의 선구자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섭리요, 은총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하느님의 자비와 은총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 모두가 ‘요한’이란 이름으로 불림을 받도록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 요한 세례자 탄생 대축일’을 보내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세례자 요한의 신앙 고백처럼 자신은 점점 작아지고 삶 안에서 그리스도만이 커지실 수 있는 겸손함을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 김지영 사무엘 신부 · 미아3동성당 주임

### 이번주 전례 봉사자

| 이번 주  | 토요 특전<br>(청년미사) | 아침 미사        | 낮 미사         |
|-------|-----------------|--------------|--------------|
| 해설자   | 최태훈<br>아우스딩     | 최진수<br>에우세비오 | 엄영숙<br>마리아   |
| 제1독서자 | 김정은<br>세실리아     | 박진수<br>스테파노  | 전배형<br>베드로   |
| 제2독서자 | 박지혜<br>수산나      | 박혜경<br>레나타   | 유현자<br>안나    |
| 제물봉헌자 |                 |              | 토 서<br>2, 3반 |

### 다음주 전례 봉사자

| 이번 주  | 토요 특전<br>(청년미사) | 아침 미사        | 낮 미사         |
|-------|-----------------|--------------|--------------|
| 해설자   | 강정현<br>시몬       | 이호미<br>엘리사벳  | 최진수<br>에우세비오 |
| 제1독서자 | 박선규<br>라파엘      | 최영신<br>프란치스코 | 이재용<br>안드레아  |
| 제2독서자 | 민슬기<br>로자리아     | 황지영<br>안젤라   | 박희자<br>마리아   |
| 제물봉헌자 |                 |              | 토 동<br>1, 3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되도록 일찍 옵시다.

◆ 가정의 성화와 레지오 재창단을 위한 묵주기도는 계속 봉헌합니다. 봉헌하신 묵주기도는 게시판에 기록합니다.

☞ 지난 주간 합계: 4,543단 ☞ 총 합계: 143,099단

7월



◆ 병자영성체: 5일(목), 오전 9시30분부터

◆ 성시간: 5일(목), 저녁미사와 함께

● 진행: 토렌스 남구역 진행

◆ 성모신심미사: 7일(토), 오후 7시30분

◆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 5일(목), 오후 7시30분

◆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 29일(금), 오전 8시30분

◆ 주일학교 방학/개학

● 개학: 9월30(주일)

※주일학생미사는 7월8일(주일)까지 있습니다.

◆ 주일 학교 Summer Camp 신청

● Camp: 7월13일(금) 오후1시 출발~15(주일) 오후5시 도착

● Woodspring Wind, Julian, CA (Food, Cabin 제공됨)

● 캠프비용: \$102 (학생부담 \$70, 본당 보조 \$32 + Bus)

◆ 한국학교 방학/개학

● 개학: 9월9일(주일)

◆ 백삼위 신앙학교 제4단계 개강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30분 (7월10일까지), 성전

● 본당신부님 주일 강론 및 신앙학교 Cassette Tape이 사무실에 준비되었습니다.

◆ 특별강연

● 오늘 주일 오후 1시, 성전

● 제목: 물의 신비와 가족의 건강

● 강사: 박규현(라파엘),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변상울(예로니모), (주)썬파이코리아 대표

● 대상: 전신자

◆ 신약성경 특강

● 7월23일(월)~27일(금), 매일 저녁 7시30분

● 제목: 요한복음과 바오로 서간

● 강사: 손삼석(요셉)신부, 전 부산가대총장, 성서학박사

● 남가주 전신자

◆ 배론 청년회 12학년 졸업생 환영회 및 여름 피크닉

● 오늘 주일, 오전 9시 출발, 라구나 비치

● 신청마감: 6월20일(수)

● 문의: 강정현 시몬 (323)899-5581

◆ 남성 제 27차 푸르실로 교육

● 6월28일(목)~7월1일(주일)

● 파견식: 6월28일(목), 오후 12시

● 수강자: 배제일(미카엘), 서병교(라파엘), 천광락(야고보)

● 수강자들을 위해 많은 기도과 빨랑카를 부탁드립니다.

◆ 천교자리(주일 점심 나누기) 봉사 담당 소공동체

● 6월24일: 토렌스 서 1반 (열무보리밥 \$3)

● 7월 1일: 소공동체 (김밥 \$3.50, 떡 \$4)

☺ 축하합니다. ☺

● 본당의 모든 졸업생들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새로운 환경과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느님의 크신 축복을 빕니다. ●

###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 교무금  | 성전헌금                                    |      |      |     |     |     |     |     |     |     |
|------|-----------------------------------------|------|------|-----|-----|-----|-----|-----|-----|-----|
|      | 강태홍                                     | 곽효식  | 권순봉  | 권태만 | 김병록 | 김상근 | 김양금 | 김영미 | 김우용 | 김원호 |
|      | 김영민                                     | 김현숙  | 민경근  | 민봉식 | 민상기 | 방세훈 | 배제일 | 서성용 | 손춘희 | 안동훈 |
|      | 우영희                                     | 육근주  | 육재민  | 윤재림 | 윤희동 | 이경태 | 이상규 | 이숙화 | 이용식 | 이재용 |
|      | 이현기                                     | 정인식  | 정정현  | 조동욱 | 조영희 | 조준제 | 이현주 | 임한나 | 임현기 | 정정현 |
|      | 하정화                                     | 허티다  | 홍석인  | 홍석철 | 홍숙자 | 황지영 | 하정화 | 홍석인 | 홍석철 | 홍숙자 |
|      | 황학수                                     | 박현주K | 송마이클 | 영희  | 가보라 |     | 영희  | 가보라 |     |     |
|      | St. M.M. 8th Grader Retreat 합계: \$6,090 |      |      |     |     |     |     |     |     |     |
| 미사헌금 | 합계: \$2,822.50                          |      |      |     |     |     |     |     |     |     |
| 감사헌금 | 성전헌금                                    |      |      |     |     |     |     |     |     |     |
|      | 강태홍                                     | 곽효식  | 권순봉  | 권태만 | 김병록 | 김상근 | 김양금 | 김영미 | 김우용 | 김원호 |
|      | 김영민                                     | 김현숙  | 민경근  | 민봉식 | 민상기 | 방세훈 | 배제일 | 서성용 | 손춘희 | 안동훈 |
|      | 우영희                                     | 육근주  | 육재민  | 윤재림 | 윤희동 | 이경태 | 이상규 | 이숙화 | 이용식 | 이재용 |
|      | 이현기                                     | 정인식  | 정정현  | 조동욱 | 조영희 | 조준제 | 이현주 | 임한나 | 임현기 | 정정현 |
|      | 하정화                                     | 허티다  | 홍석인  | 홍석철 | 홍숙자 | 황지영 | 하정화 | 홍석인 | 홍석철 | 홍숙자 |
|      | 황학수                                     | 박현주K | 송마이클 | 영희  | 가보라 |     | 영희  | 가보라 |     |     |
|      | 합계: \$3,695                             |      |      |     |     |     |     |     |     |     |
| 미사헌금 | 합계: \$2,822.50                          |      |      |     |     |     |     |     |     |     |
| 감사헌금 | 노천수 박정희 장숙환 익명                          |      |      |     |     |     |     |     |     |     |

## 남가주 소식

### ◆ 젊은이들을 위한 제17차 성령안의 새 생활 세미나

- 6월28일(목) 오후 7시~7월1일(주일) 오후3시
- 테메쿨라 꽃동네 피정의 집  
37885 State Highway 79, Temecula, CA 92592
- 지도: 최석현 마르코 신부님
- 대상: 18세 부터 30 미만, 학생, 미혼 및 기혼 청년
- 참가비: \$160 (6월20일 전까지) \$180
- 준비물: 성서, 묵주, 세면도구, 필기도구, 미사예물, 침낭  
손전등
- 주최: 남가주 성령쇄신 청년봉사회 (KYCR)
- 연락처: John Cho (714)519-1550

### ◆ 2007 FIAT Family Mass (FIAT 가족미사) & BBQ

- 7월15일(주일) 오후 5시, 성 토마스 한인 성당
- 예약 문의: (714)702-9830

### ◆ 제16차 선택주말 참가자 모집

- 8월3일(금)~5일(주일)
- Mary Joseph Retreat Center, 5300 Crest Rd., R.P.V.,
- 대상: 22~35세 미만의 미혼 남녀
- 신청마감: 6월30(토) ● 참가비: \$150
- 문의: 남가주 선택 협의회 (714)713-0131

### ◆ 청소년들을 위한 꽃동네 피정 안내

#### 1. 제5차 Bible Camp

- 6월21일(목)~24일(주일) ● 지도: 유필립보
- 대상: 8학년~12학년 ● 참가비: \$110

#### 2. 제3차 Summer 영성 피정

- 8월16일(목)~19일(주일) ● 지도: 이유진 신부님
- 대상: 9학년~12학년 ● 참가비: \$110
- 신청문의: (951)302-3400

## 사람을 구합니다.

### ◆ 산후 조리 해주실 분 구합니다.

- 7월16일경부터 약 한 달 정도
- 문의: 323-820-7727

### ◆ Villanova Preparatory School (Boading) needs a resident assistant in its boys' dorm, Ojai, CA

- College Graduate Korean-speaking Male
- \$25K a year, Free room/board plus other benefits
- Send resumes to: mstumpf@villanovaprep.org

## 이번 주 단체 모임

|     |           |
|-----|-----------|
| 사목회 | 오후 1시, 강당 |
|-----|-----------|

## 다음 주 단체 모임

|          |           |
|----------|-----------|
| 구역/반장 모임 | 오후 1시, 강당 |
|----------|-----------|

## 소공동체 반모임 안내

| 소공동체 부장                                     |   | 김순희 모니카 (310)328-1817    |                                           |
|---------------------------------------------|---|--------------------------|-------------------------------------------|
| 구역/장                                        | 반 | 반장                       | 장소/날짜                                     |
| 토렌스 동<br>유현자<br>안나<br>320-3697              | 1 | 김양금 안나<br>518-3041       | 김양금 안나 518-3041                           |
|                                             | 2 | 신중철 아브라함<br>949-679-4321 | 신중철 아브라함 949-679-4321                     |
|                                             | 3 | 한길선레 스킨라스티카<br>782-1025  | 한길선레 스킨라스티카 782-1025                      |
|                                             | 4 | 정종미 클라라<br>373-1237      | 형제반 1째 수 오후7시, 성당<br>자매반 3째 수 오후7시, 성당    |
| 토렌스 서<br>김숙희<br>오틸리아<br>782-8549            | 1 | 엄혜은 도로테아<br>200-0512     |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
|                                             | 2 | 이명순크리스티나<br>374-1572     | 이명순크리스티나 374-1572                         |
|                                             | 3 | 김미성 마리아<br>798-6540      | 김미성 마리아 798-6540                          |
|                                             | 4 | 이은록 요셉<br>371-4645       | 이은록 요셉 371-4645                           |
| 토렌스 남<br>김씨니<br>클라라<br>612-8840             | 1 | 신성주 엘리사벳<br>891-1837     | 신성주 엘리사벳 891-1837                         |
|                                             | 2 | 임진희 한나<br>720-7898       | 임한나 720-7898                              |
|                                             | 3 | 임형미 사비나<br>408-3835      | 임형미 사비나 408-3835<br>7/13(금) 오후 7시, 성당     |
|                                             | 4 | 이정훈 안셀모<br>908-8823      | 이정훈 안셀모 908-8823<br>Club.cyworld.com/103  |
| 토렌스 북<br>권순길<br>세실리아<br>365-2183            | 1 | 박정희 마리아<br>715-2609      | 박정희 마리아 715-2609                          |
|                                             | 2 | 이복임 엘리사벳<br>516-0818     | 이복임 엘리사벳 516-0818                         |
|                                             | 3 | 현영화 베로니카<br>530-2136     | 현영화 베로니카 530-2136                         |
| 하버 칼슨<br>박혜경<br>레나타<br>(소공동체차장)<br>808-5005 | 1 | 최경애 프란치스카<br>326-6587    | 최경애 프란치스카 326-6587                        |
|                                             | 2 | 김희복 아네스<br>326-2283      | 김희복 아네스 326-2283<br>7/14(토), 오후 7시30분, 성당 |
|                                             | 3 | 이영희 카타리나<br>518-1736     | 장숙환 수산나 370-6589<br>7/10(화), 오후 2시        |
| P. V.<br>이정숙<br>스테파니<br>755-1794            | 1 | 홍정란 클라라<br>544-6290      | 홍정란 클라라 544-6290                          |
|                                             | 2 | 김숙희 유소사<br>544-4807      | 김숙희 유소사 544-4807                          |
|                                             | 3 | 윤은경 미카엘라<br>265-0856     | 윤은경 미카엘라 265-0856                         |
|                                             | 4 | 송기순 엘리사벳<br>265-0495     | 송기순 엘리사벳 265-0495                         |

## 물 학(學)과 건강

물이 생명체의 요체임은 모든 이들이 알고 있다. 따라서 생명체에 생기는 이상한 현상을 물을 이용하여 고칠 수 있다는 생각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우리 조상님들이 정화수를 떠 놓고 기도드린 이야기는 아직 우리의 뇌리에 맴돌고 있다.

체내의 수분량은 연령에 따라 다르다. 체중에 비해 수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연령에 따라 다르다. 인체를 구성하는 세포내와 세포외, 순환혈장의 물이 점유하는 비율은 각각 66%, 26%와 8%이다. 일반적으로 탈수라고 이야기 할 때는 혈장내의 수분이 모자라는 것을 의미하며, 건강을 이야기 할 때 중요한 것은 세포내의 물이 충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포내의 물 부족과 관계있는 증상은 다양하고, 이런 증상을 나타내는 질환도 다양하지만 이를 인식하는 의료인은 얼마 되지 않는다.

많은 질병의 원인이 세포의 탈수와 관계가 있다고 밝힌 사람은 바트만겔리지(Batmanghelidj)이라는 의사였다. 그는 이란의 감옥에서 1979년부터 1982년까지 3년간 지냈다. 그는 감옥에서 생활하면서 환자를 돌보았는데, 여기서 얻은 소중한 자료를 바탕으로 1982년부터 미국에서 건강관리와 질병관리에 물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www.watercure.com)

사람은 체중 1킬로그램당 33밀리리터의 물을 매일 마시는 것이 기본이라는 개념을 세웠다. 물의 구조에 대한 연구는 한국인 전무식박사가 40여 년간 연구하여 250여 편의 연구업적을 남겼다. 전박사가 주장한 육각수의 개념은 물 연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정상세포와 암세포주위의 물 구조를 연구하여 육각수의 기능을 주장했다. 물의 형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진으로 찍은 이는 일본인 의사 에모토 마사루이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먹는 물은 그 입자가 포도송이(cluster)형태로 200내지 500개가 붙어있는 꼴이고, 물의 종류에 따라 그 포도송이의 크기가 다르다. 이 포도송이의 크기 작으면 여러 가지 기능을 한다는 것은 미국인 로렌즈(Lee Lorenzen)가 밝혔다. 이 작은 포도송이 물은 영양분을 전달하는 것이 용이하고, 세포내의 독성물질을 쉽게 제거하고, 세포의 대사를 촉진시킴을 밝혔다. 자기가 자석의 성질을 가짐으로 물도 자성을 띄게 되며, 이 자성을 이용하면 물의 기능을 향상시켜 여러 가지 유효함을 밝혀 응용하는 것을 제시한 미국인 월러(David Wheeler)이다. 2003년 노벨화학상을 받은 피터 아그레(Peter Agre)는 물이 인체의 세포에서 이동할 때 12종류의 물수도(water channel)를 이용한다는 것을 밝혔고, 조직에 따라 다른 물 수도를 이용하지만 물 분자가 이동할 때는 한 분자씩 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위에 언급한 모든 조건을 갖춘 물은 한국인 변상울 선생에 의해서 27년 전에 발명된 세라믹 물이 있다. 2004년 7월 8일 물학(Aquology, Water Science)이란 용어를 정의하여 인터넷에 올린 것을 보면 도움이 된다. (www.sy1000.co.kr) 이 물은 입자의 크기도 가장 작은 것으로 밝혀졌고, 에모토 마사루의 사진으로도 가장 완벽한 육각의 형태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이런 성질을 가진 물을 건강증진, 질병의 예방, 질병의 치료에 응용할 수 있다.

◆ 박규현(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신경과 교수), 변상울(선파이코리아 회장)